

‘2018 탄소가격제 현황 및 추세’ 요약

◆ 세계은행(World Bank)은 전 세계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‘2018 탄소가격제 현황 및 추세’(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) 보고서를 발간(’18.5월)

□ 전 세계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 및 전망

○ 88개 NDCs* 분석 결과, 탄소가격제 또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국가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% 차지

- ‘18년 3월말 기준, 전세계 45개국 및 25개 하위조직(주, 도시 등)에서 탄소가격제 도입하여 11GtCO₂e(전세계 배출량의 20%) 규모의 배출량 관리중

*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: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공약한 감축목표(적응 포함가능)와 이행수단 등을 명시한 공식문서

- 탄소가격은 1톤당 미화 1달러 미만(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탄소세)에서 139달러(스웨덴 탄소세)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 또한 상승 추세

* 전세계 배출량의 46%는 1톤당 탄소가격이 미화 10달러 미만으로 거래중

< 전세계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 >



● 배출권거래제(ETS) 도입중 또는 도입예정

● 탄소세 도입중 또는 도입예정

● ETS 또는 탄소세 검토중

● ETS 및 탄소세 도입중 또는 도입계획

● 탄소세 도입중 또는 도입계획, ETS 검토중

● ETS 도입중 또는 도입계획, 탄소세 검토중

○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 제정과 특수 분야(항공, 해운) 배출 관리를 위한 국제기후변화협상회의 개최

- 현재 국제사회는 협상 마감시한을 2018년으로 정하고, 연내에 세부 문안 합의를 위한 기술적인 협상 진행중

□ 국제 탄소가격 이니셔티브

- (성과 기반의 기후재원) 녹색기후기금(GCF)과 세계은행(World Bank)은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사업성과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범적으로 추진중
 - GCF는 현재 시범사업(예산규모: 5억 달러)으로 개도국 산림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성과가 있는 사업*에서 발생한 감축크레딧 1톤당 5달러 지원
 - *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부터의 배출량 감소(REDD+), 지속가능한 산림관리, 산림보존, 탄소흡수원 향상 사업 등
 - 세계은행(World Bank)은 금융메커니즘*을 활용하여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(CDM, VCS 등)에 대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자금 유치 지원
 - *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크레딧에 대한 하한가를 보장하는 풋옵션 채권을 세계은행이 경매를 통하여 직접 발행함으로써 투자자 자금유입 유도
- (항공 부문)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탄소상쇄감축제도(CORSIA) 추진 중
 - '18년 1월 기준, 전세계 항공부문 배출량의 88%를 차지하는 73개국이 2021년 시행예정인 CORSIA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계획
 - 항공부문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관행 채택('18.6월)
- (해운 부문) 국제해사기구(IMO)는 해운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초기 전략(안)* 채택('18.04.13)
 - * 파리협정 이행과 국제 해운부문의 완전 탈탄소화를 목표로 2050년까지 2008년 배출 수준 대비 50%를 감축하고 배출량 정점(peak)을 도달하기 위한 이행수단 제시

□ 주요국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

- (미국) 트럼프행정부의 반(反)기후정책*으로 연방 차원보다는 하위 단위(주, 도시, 기업 등)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 추진 중
 - '18.4월 기준, 파리협정 준수와 미국의 NDC 이행을 위하여 발족한 미국기후연합(United States Climate Alliance)에 16개 주(州) 참여 등
 - * 파리협정 탈퇴 공표('17.8월), 청정전력계획 폐기안 발의('17.10월)
- (EU) '18년 2월, EU집행위원회는 ETS 4단계(2021~2030) 계획을 공식 승인
 - '26년까지 무상할당 비중을 30%까지 줄이고, '30년 이전 모두 유상할당 계획
 - * 단, 탄소누출의 위험이 있는 부문은 100% 무상할당 유지
- (중국) '17년 12월,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 발표
 -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력부문 시물레이션 거래에 각 1년을 거친 후, 7개 부문(항공, 전자재, 화학, 철강, 제지 등)으로 점진적 확대 예정

<출처>

1. 기후변화대응 부문

- 해외이슈 < '2018 탄소가격제 현황 및 추세' 요약 >
 -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(World Bank, 2018.5)